

오랜 세월동안 사도신경을 암송하며 신앙고백해 오던 필자는 WCC와 로마 카톨릭 중심의 종교통합에 관하여 연구하면서부터 지금 이 시대는 신앙의 노선을 분명히 하고 종교통합 세력과 차별화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현재 WCC에 가입된 수 많은 개신교 단체들이 로마 카톨릭과 “교회 일치”의 동일한 슬로건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로마 카톨릭의 배경과 교리에 근거한 사도신경을 개신교가 함께 신앙고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재고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1. 로마 카톨릭 배경과 교리에 근거한 사도신경

사도신경이라는 제목은 본래 뜻대로 하면 “사도들의 신경(The Apostles' Creed)”이라고 하여 사도들의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사도들이 친히 전해준 신경(Creed)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전해준 것이 아니고, 사도시대 이후 수 백년이 지나면서 기초적 삼위일체 고백에 보태어 조금씩 추가로 삽입하여 오늘날의 사도신경이 완성되었다.

지금의 사도신경이 나오기 전에 사용되었던 최초의 신경은 안키라의 주교인 마셀루스(Marcellus of Ancyra)가 로마의 감독인 줄리우스(Julius)에게 AD341년에 보낸 편지에 기록되어 있다. 그 후 약 50년이 지나서 수도사인 타이래니우스(Tyrannius Rufinus)가 라틴어로 신경 주석(Commentarius in symbolum apostolorum)을 기록하였는데, 그는 주장하기를 오순절 성령강림 후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신경을 기록하였다고 했다(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cond Series, Vol. III, 1892, Symb.2). 그리고 주후 390년경에는 밀란의 주교, 암브로스(St. Ambrose)가 그 신경에 대하여 “로마교회가 전적으로 유지하고 보존해야 할 사도들의 신경”이라고 주장하므로 “사도신경(the Apostles' Creed)”이라는 제목이 붙게 되었다(Fathers of the Church: Latin Fathers of the Nicene Era, 25 Vols., Ep. 42). 하지만 그것은 근거 없는 주장일 뿐 아니라 제목부터 잘못된 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게 만들어 지금까지 이른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는 것은 암브로스의 주장에 동조하여 사도들이 전해준 신경을 믿는다는 의미가 있다.

사도신경이 나오기 전에 사용한 간단한 신경은 “옛 로마신경(The Old Roman Creed)”이라고 하였다. 거기에 추가 구절들이 본격적으로 첨가되기 시작한 것은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한 이후 부터이다. 추가로 삽입된 구절 가운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고성소(저승)에 내리시어(He descended into hell)”라는 구절이 AD390년 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거룩하고 공변된 교회(the Holy Catholic Church)”와 “모든 성인의 통공(the Communion of Saints)”은 AD650년경부터 나타났다.

암부로스(St Ambrose)가 “사도들의 신경”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후, 사도신경에는 “고성소(저승)에 내리시어(He descended into hell)”라는 문구가 추가 되었는데, 영어로는 예수님이 지옥(hell)에 가셨다고 되어있지만 카톨릭의 교리는 천당과 지옥의 중간지점(람보)을 의미한다. 그 당시 교부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됨에 따라 죽음과 부활 사이에 중간상태가 있을 것임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저스틴(Justin Martyr), 터툴리안(Tertullian of Carthago), 암부로스(St. Ambrose of Milan), 어거스틴(Augustine of Hippo)등이 죽은 사람들은 음부(저승)에서 심판때까지 정화를 기다리는데 점점 정화된 사람은 좋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사상(람보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 교리적 추세가 그러하였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벵전3:19에 근거한 “고성소(저승)에 내리시어(He descended into hell)”라는 구절은 그 당시 신앙사상으로 볼때 예수님이 중간상태(람보)에 있는 영들에게 내려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해석은 사도신경 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로마

카톨릭의 교리이며, 사도신경의 본색 이다.

사도신경에 “**고성소(저승)에 내리시어(He descended into hell)**”가 삽입된 것은 벵전3:18-20의 내용에 근거한 것이며, 그것은 매우 난해한 성경구절이므로 신학자들이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칼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지옥에 가셨다고 보지 않았지만, 벵전3:19의 “옥(prison)”은 구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구속의 완성을 대망하는 곳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즉,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그 구속의 완성을 옥에 있는 구약의 성도들에게 통고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20절에 보면 그 옥(prison)에 있는 영들은 성도들이 아니고 악한 자들이므로 칼빈의 주해도 적절하지 않았다(박윤선 주석, p.279).

종교개혁자들도 착오를 일으키며 주해할 수 밖에 없는 것처럼 난해한 구절을 로마 카톨릭이 사도신경에 인용한 것은 결국 로마 카톨릭의 연옥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의적이기 보다는 사도신경 초기 교부들의 램보 사상이 그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발견하여 개신교에서는 사도신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승에 내리시어(He descended into hell)**” 라고 한 구절을 삭제한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사도신경의 원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개신교에서 본래 사도신경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도신경이 아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로마 교황청이 신부나 사제들만이 읽을 수 있는 라틴어성경만 허용하였기 때문에 일반 신도들에게는 성경의 암흑기였다. 종교개혁이후 개혁자들이 일반 신도들을 위하여 라틴어 성경을 번역할 때 거기에 있는 외경(Apocrypha)도 함께 번역하여 존 위클리프 성경, 제네바 성경, 앵글리칸 정통교회 성경 등에서 사용하였다. 개혁자들도 로마 카톨릭의 외경의 모순점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종교개혁이후 개신교 지도자들도 교리적으로 완벽하지 못하였다. 1611년에 편찬한 킹제임스 성경도 외경을 함께 인쇄하여 사용하다가 274년이 지난 1885년에야 킹제임스 성경에서 외경을 삭제하여 로마 카톨릭의 유산을 제거하였다.

2. 사도신경 고백은 로마 카톨릭의 교회일치 주장에 동참 하는 것

기독교인들이 주시해 보아야 하는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종교계의 통합운동 이다. 1948년 네델란드 암스

사도신경

(한국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내용)

전능하신 천부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신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고성소(저승)에 내리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 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신을 믿으며, 기록하고 공행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사함과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히 삶을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한국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내용)

전능하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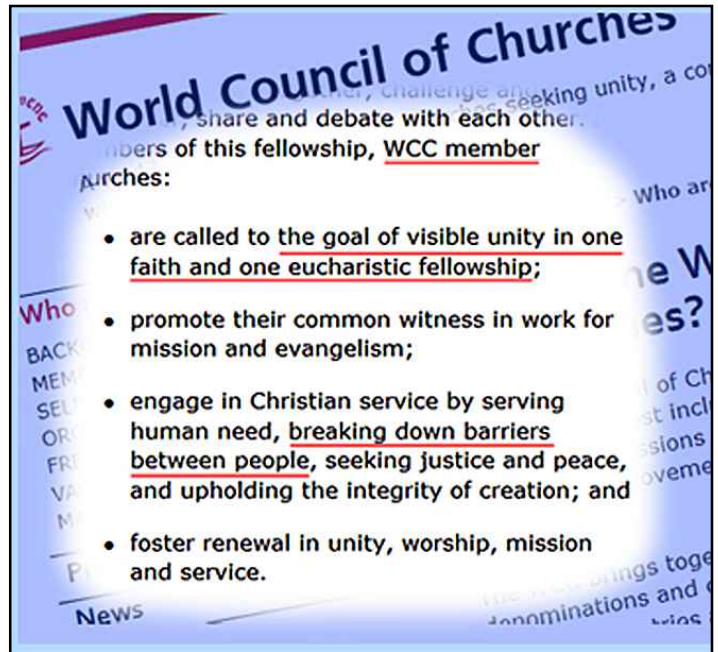
성령을 믿사오며, 기록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Apostles' Cre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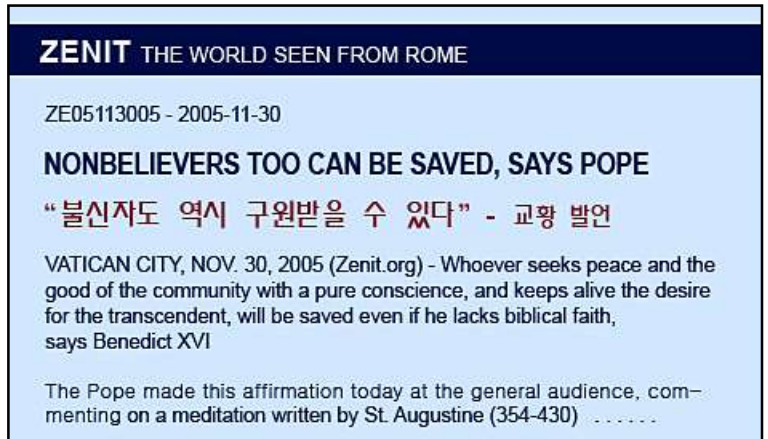
(개신교 영어권에서 사용 중인 내용 — 천주교와 같음)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Ghos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teth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Ghos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텔담에서 창설된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세운 목표는 “**눈으로 확인 할 수 있겠끔, 한 믿음과 한 성찬으로 교제하는 일치된 교회**” 를 만드는 것이었다. 즉, 한 신앙, 한 성찬의 교제에 모든 교회가 가시적으로 하나가 되자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WCC의 주장은 로마 카톨릭의 “**교회일치**” 운동과 맥락을 같이 한다. WCC의 “**교회일치**” 운동은 개신교 안의 교회들이 하나로 화합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일한다는 궁극적 목표임을 그동안의 WCC 총회 표어를 종합해 보면 알 수 있다. 1961년 3차 총회에서는 “**구원은 모두에게 임하는 보편적인 것**” 이라고 발표하였고, 1983년 6차 총회에서는 “**타 종교도 역시 하나님께로 가는 또 다른 길**” 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1991년 7차 총회에서는 **타종교와 점술가, 심령술, 마술사, 무당 등 세계 15개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대규모 종교혼합집회를 시작하여** 매년 총회 때마다 계속되고 있다. 그것은 WCC가 세계 종교의 통합과 단일성을 주장하며 나가는 것이다.



거기에 발맞추어 로마 카톨릭 교황청도 다른 종교들을 포섭하여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로마 교황도 성경적 구원관을 부인하여, “**불신자도 역시 구원 받을 수 있다**” (Nonbelievers too can be saved, - 교황 베네딕트 16세, Nov. 30, 2005) 고 하며, “**죄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지 않는다**” (No Forgiveness Directly from God — 교황 바오로 2세, Dec. 12, 1984) 라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타종교인들을 포섭하여 로마 카톨릭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회유책이며, 이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교회일치**” 이다. 로마 카톨릭은 개신교를 정상적인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며, 세상에서 오직 유일한 참 교회(the true church)는 로마 카톨릭 교회(The Roman Catholic Church)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교회일치”를 주장하는 것은 곧 로마 카톨릭에 흡수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로마 카톨릭의 세계 종교통합 운동의 첫번째 대상은 두말 할 것도 없이 개신교이다. 이제 개신교는 카톨릭의 계획안에 포위되어 있다. 획기적으로 그러한 변화를 일르킨 놀라운 사건이 1994년 3월 29일에 일어났다. 그것은 “**종교개혁을 뒤엎는 사건**” 이었다. 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자들과 로마 카톨릭이 “**복음주의자들과 카톨릭 신도들의 연합(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 ECT)**” 이라는 제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미국 복음주의 연합회 의장인 로버트 시몬즈(Robert Simonds)는 이 공동선언문으로 “**카톨릭 신도들과 복음주의자들 간의 협력 증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결국,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이 함께 손잡고 믿음의 형제임을 자처하는 시발점이 된 것이다.

그러한 로마 카톨릭의 세계 종교통합 운동의 첫번째 대상은 두말 할 것도 없이 개신교이다. 이제 개신교는 카톨릭의 계획안에 포위되어 있다. 획기적으로 그러한 변화를 일르킨 놀라운 사건이 1994년 3월 29일에 일어났다. 그것은 “**종교개혁을 뒤엎는 사건**” 이었다. 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자들과 로마 카톨릭이 “**복음주의자들과 카톨릭 신도들의 연합(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 ECT)**” 이라는 제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미국 복음주의 연합회 의장인 로버트 시몬즈(Robert Simonds)는 이 공동선언문으로 “**카톨릭 신도들과 복음주의자들 간의 협력 증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결국,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이 함께 손잡고 믿음의 형제임을 자처하는 시발점이 된 것이다.

여기에 참여한 복음주의자 지도자급에는 Charles Colson(*Prison Fellowship*), Herbert Schlossberg(*Fieldstead*

Foundation), Bill Bright(Campus Crusade for Christ: CCC), Richard Mouw(Fuller Theological Seminary), Mark Noll(Wheaton College), J.I. Packer(Regent College), Pat Robertson(Regent University), Elizabeth Achtemeier (Union Theological Seminary) 등이 포함된다.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동일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고 있으니 당연히 같은 신앙을 가졌고, 차별없는 동일한 믿음의 형제가 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즉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고백하는 것은 카톨릭과 개신교가 “교회일치”를 이루는 촉매제가 되는 셈이다.

그 이후, 미국 내에서 그 ECT사건을 더욱 발전시켜 확장하는 본격적 사건이 2004년도에 발생했는데, 그 사건은 “미국 기독교회 연대(Christian Churches Together: CCT)” 창립이었다. 그들의 웹사이트에 가면 그 창설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2003년 1월 캘리포니아의 파사데나에 소재한 풀러신학교에서 미국내 주류 개신교, 로마 카톨릭, 오순절, 그리스 정교 등 55개 교단 대표자들이 모여서 CCT 창설 계획을 수락하였다”

그 대표 교단들이 CCT창립총회를 위해서 각 교계에 공동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 대표 교단들 중에는 한국 교인들이 잘 아는 CRC, PCUSA, RCA, KPCA 등이 있다. KPCA(해

외한인장로회: 미주내 통합측)은 미국내 한인교 교단으로는 유일하게 참여하였다.

CCT USA Christian Churches Together-USA

A History and Background of CCT-USA

Christian Churches Together in the USA began in September, 2001, with a meeting of church leaders in the US who explored the need for expanding fellowship, unity, and witness among the diverse expressions of Christian faith today. They lamented the absence of any one place where representatives of historic Protestant, Roman Catholic, Pentecostal, Evangelical, and Orthodox churches come together officially to strengthen their unity in Christ and empower their mission An expanded group of 55 denominational and other church leaders met at Fuller Seminary in Pasadena, CA in January, 2003 for this purpose

로마 교황청은 “종교간 대화평의회(The Pontifical Council for Interreligious Dialogue: PCID)”라는 기구가 있어서 세계 종교를 하나로 아우르기 위한 정책을 쓰고 있다. 그리고 실행강령 제3항에 보면 “본 교황청의 종교간 대화평의회는 종교간 대화의 에큐메니칼 중요성을 염두에 두며, WCC 안의 동일한 사무국과 지속적 관계를 유지한다” 라는 조항이 있다. 로마 카톨릭은 그러한 정책으로 WCC와 깊은 관계를 맺고 오랜 세월동안 기독교 복음주의를 자기들의 수중 안으로 끌어들이며,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이 믿음의 동반자인 것처럼 가시화 하고 있다.

3. 종교통합 시도는 말세적 징조

세계 제2차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는데 범 세계적 통합기구들이 창설된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질 징조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시날 평지에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아 이름을 내고 흠어짐을 면하자는 슬로건을 내 걸며 총력을 기울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므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고 각기 흠어지게 되었고, 결국 오늘날과 같이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 인류가 흠어져 살고 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으므로 지금과 같이 다양한 나라, 민족, 언어, 문화, 종교, 정치, 경제, 군사 등이 각각 서로 다르게 분리되어 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탑이 다시 나타나며, 창세기의 바벨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모양새로 나타날 것을 예고한다(계17-18장). 창세기 11장에서는 세상의 처음 영걸 통치자인 니므롯(Nimrod)이 등장하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세상 마지막 영걸 통치자 적그리스도(Antichrist)가 등장하여 하나님처럼 높아져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외친다(계13:1-10). 그 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합되어 적그리스도를 하나

님으로 섬기며, 금융제도도 통합되어 666표가 매매수단이 된다. 벌써 온 세계는 각 나라마다 다문화가 되어 인종들이 섞여가고 있으며, 셀폰에서도 즉시 통역하는 앱이 있어서 언어의 불편이 점점 없어져가고 있다. 기업과 마케팅도 통합되어 가므로 군소 업체는 점점 사라지고, 식품과 생필품 구입도 월마트, 코스코, 홈데포 등 제한된 장소에서 구입하게 되어 간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임박해 갈수록 세상의 나라, 민족, 언어, 문화, 종교, 정치, 경제, 군사의 영역은 점점 단일화로 통합되어 갈 것이다.

WCC가 지금 로마 카톨릭과 손잡고 서로 친근하게 접근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교회일치”의 공통분모 때문이다. 그들은 개신교를 향하여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은 “너희들은 우리의 형제들이다. 너희들의 신앙은 우리들과 동일하다. 우리는 동일하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느냐?” 라고 한다. 사도신경으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므로 사도신경은 서로 “교회일치”의 공통분모가 되며, 세계 단일교회 시스템으로 발전해 가게 될 것이라고 본다.

한국의 개신교에서는 본래의 사도신경에서 “고성소(저승)에 내리시어” 를 삭제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영어권의 개신교 젊은이들은 계속 로마 카톨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앙을 고백하여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고 하며, “I believe . . . The Holy Catholic Church (나는 . . .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래서 영어권의 젊은이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로마 카톨릭과 동일한 신앙을 공유하고 있다고 믿는다. 더욱이 개신교의 이름 있는 지도자급들이 로마 카톨릭과 손잡고 “교회일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 그들은 더욱 로마 카톨릭과 친근감을 가질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의 복음주의 교계 현황이며, 사도신경이 동일한 신앙의 공통분모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개신교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출처가 로마 카톨릭이며, 그들의 교리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동일한 타이틀의 “사도신경” 제목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한 이해도 서로 동일하게 느껴야한다. 몇 구절을 삭제하고, 또는 말을 바꾸었다고 해서 사도신경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만일 로마 카톨릭의 사도신경이 성경적 신앙에 맞지 않아 변경하였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도신경이 아니다. 개신교 자체의 공통된 신앙고백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개신교에는 로마 카톨릭 배경의 사도신경보다도 수 십배 뛰어난 신앙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이다. 영국 국회가 목사 121명, 상원의원 10명, 하원의원 20명등으로 구성된 총151명의 성경 연구위원들을 선정하여 1643년 7월부터 1647년까지 매일 5시간씩 총 1064회 회의(Westminster Assembly of Divines)를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진행하도록 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대요리문답(The Large Catechism), 소요리문답(The Shorter Catechism)을 작성하였다. 이 표준 문서들은 종교개혁 이후 성경의 진리를 가장 조리있고 체계있게 다룬, 가장 대표적 교리서들이다. 이 회의에서 성경을 66권으로 확정하고 개혁자들이 포함시켰던 외경들을 삭제하였다(개혁자들도 교리적으로 완벽하지 못했음을 보여줌).

말세에 바벨탑 재건을 위한 출발
(각 분야에 국제적 통합기구 창설)

정치 → U.N. 창설(1945)
 유럽공동체(EEC) 창설(1956)

경제 → 국제통화기구(IMF) 창설(1945)
 세계은행(WB) 창설(1944)

종교 → 세계교회협의회(WCC) 창설(1948)
 에큐메니칼 운동 시동

문화 → 국제교육과학 문화기구
 UNESCO 창설(1948)

과학 → 컴퓨터 발명(1951)
 Global System 가속화

지금 개신교는 사도들이 물려주지도 않은 사도신경, 개혁자들이 버리지 못하고 카톨릭에서 물려받은 사도신경 아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것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교육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한국교회가 보수적 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가르쳐온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만 보더라도 신앙의 기본 진리와 교리, 생활규범을 간결하게 다루며 한국 기독교 교육에 많은 공헌을 하여 신실한 신앙인들을 길러왔으므로 기독교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교회부흥을 한국 땅에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개신교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그것이 로마 카톨릭의 사도신경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신앙고백의 제목을 **“사도신경(사도들의 신경)”**이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 출처와 배경이 동일한 신앙고백이고 동일한 제목 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이율배반 이다. 사도신경이라는 제목은 본래 **“사도들의 신경(The Apostles’ Creed)”**이라는 사도들의 소유격으로 표현되어 사도들이 전해준 신경이라는 뜻이다. 그 제목 자체부터가 모순이지 않는가? 모순된 제목의 내용을 신앙으로 고백하는가?

교부시대 기독교 초기 이후 한 동안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단들이 나타나 삼위일체 교리를 위협하는 때에는 사도신경 고백이 유효하였다. 그래서 얼마 동안 삼위일체 교리는 이단들을 분별하는 잣대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삼위일체 주장을 가장한 이단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다. 그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해서 바른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Mary)를 예수님과 함께 공동 구세주라고 주장한다. 교황 레오 13세는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중보자이며, 하늘의 은총의 중보자인 동정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만큼이나 구속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없다”** 고 하였다(Suprimi Apostolatus Rudolf Graber, Wurzburg, 1954, p.30). 그리고 그의 회칙, Magnae Dei Matris(Of the great Mother of God)에서 명시하기를 **“그리스도 주(Lord)가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중보자(Mediator)이다”** 라고 하였다(Graber, 62). 또 그의 Lucunda Semper에서는 **“로마 카톨릭이 기도를 통하여 마리아의 후원을 추구하는 가장 깊은 이유는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 은총의 중보자 사역 때문이다”** 라고 하였고(Graber, 83), 그의 회칙, Augustissimae Virginis(Of the Most August Virgin Mary)에서는 **“마리아를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의 은총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하였다(Graber, 115).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 여신(The Queen of Heaven =하늘 황후)을 섬기므로 하나님의 분노를 산 적이 있다(렘7:18, 렘44:17-22).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가 바로 그 여신이라하는데 그 이유는 로마 카톨릭에서 마리아의 공식 이름이 천상모후(The Queen of Heaven =하늘 황후) 이기 때문이다.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삼위일체에는 마리아가 반드시 동반한다. 그들에게는 마리아 없는 중보자 예수는 존재할 수 없고,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가는 통로 이기 때문에 그들은 **AD JESUM PER MARIAM (To Jesus through Mary: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라는 표어를 사용한다. 만일 사도신경이 이단을 분별하는 잣대라고 아직도 주장한다면,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고백하는 로마 카톨릭은 이단이 아니라는 주장이 된다. 사도신경을 옹호하다 보면 결국 로마 카톨릭과 교회일치, 신앙일치를 도모하며 카톨릭에 동화될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현재 기독교계의 동향이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